

국가간의 국제경쟁력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을 중심으로—

조 동 성

《목 차》

I. 연구의 목적	력을 갖는 산업의 추출
II. 이론적 배경	1. 방법론
1. 국제경쟁력 결정모델의 정립	2. 한국산업의 경쟁력 패턴
2. 결정변수	IV. 2단계 접근 : 국제경쟁력에 대
3. 변수들간의 상호 연관성	한 산업별 분석
III. 1단계 접근 : 한국이 국제경쟁	V. 결 론

I. 연구의 목적

한 국가의 국제경쟁력에 대한 논의는 최근 들어 미국의 국가경쟁력의 쇠퇴와 함께 다시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개념은 그 연원을 18세기의 중상주의적 사고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18세기의 중상주의이론과 함께 시작된 무역론에서의 논의는, 그러므로 국가를 관찰의 대상으로하여, 국가전체의 경쟁력에 대하여 분석할 틀로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의 상황은, 한 국가가 거의 모든 산업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던 과거와는 달리, 한 국가는 몇가지의 특정 산업에서만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70년대까지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던 미국의 경쟁력 퇴조와 함께, 다른 국가, 예컨대 아시아의 신흥공업국들의 특정 산업에서의 경쟁력 확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범세계화 현상은 시장상황, 경영범위, 그리고 요소의 확보에 있어서 그 개념의 범위를 넓히게 하였고, 따라서 지금까지 고정된 요소로만 파악하고 있던 많은 국제경제학에의 가정들의 변경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특정 산업에서의 경쟁력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 국가내에서의 경쟁력을 갖춘 산업군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경쟁력의 정도를 평가해 보려는 것

으로, 이를 통하여 산업 경쟁의 범세계화 현상을 고려한 새로운 국가경쟁력 모델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는 경쟁력의 개념 및 결정요인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며, 한국의 경쟁력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방법으로는 위에서 설명할 1단계 접근을 통해 한국산업중에 국제경쟁력이 있는 산업을 추출하고 2단계 접근에서 추출된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분석하고 결론을 내 보기로 하겠다.

II. 이론적 배경

국제경쟁력이란 국내교역(domestic trade)이 아닌 국가간의 교역(international trade)에 있어서의 특정 산업이나 상품이 국내시장에서는 물론 해외시장에서의 일정수준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국제무역이 국내무역과 다르며 그 중요성을 가지는 주된 이유로는 교환의 전제가 되는 생산과 소비가 국내에서의 경우와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으며, 교역조건, 시장에 대한 지식 등이 다르기 때문에 외국비용(cost of foreignness)을 가지고 경쟁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제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리여건을 극복하는 제반 변수를 알아본 후, 이들 변수가 어떻게 작용하여 경쟁력을 형성하는가에 대하여 알아보아야 한다. 기존의 해외직접투자이론은 주로 외국비용의 극복을 내부화이론과 독점적 우위이론에서 찾고 있는데, 독점적 우위이론에서는 저렴한 자본조달비용, 마케팅능력, 경영관리기술, 규모의 경제, 기술에 있어서의 know-how, 상표 등에서 외국비용을 상쇄시키는 경쟁력의 원천이 발생한다고 파악하면서, 이러한 요인과 더불어 리요인의 해외조달(foreign sourcing)을 통하여 경쟁력은 형성된다고 보고 있다[Hym (1960)].

본 연구에서는 국제경쟁력을 앞에서 정의한 시장점유율로 파악하여, 경쟁력의 결과는 수출과 직접투자, 간접투자의 방법으로 나타나며, 수입과 직접투자, 간접투자를 통하여 경쟁력은 획득되어진다고 정의하겠다.

경쟁력의 측정방법으로 제시된 것으로는 교역조건에 의한 방법, 상대가격에 의한 방법 그리고 실현된 비교우위 지표로서의 상대적인 세계시장점유율의 측정방법인 사후적 비교우위 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를 이용하는 방법의 세가지 정량분석방법이 일반적이다.

첫번째의 방법으로는 무역론에서 일반적으로 국가단위의 경쟁력 분석시에 쓰이는 교역조건(terms of trade)에 의한 분석의 방법으로 이는 리카아도의 비교우위론에 의한 방법이다. 교역조건은 일반적으로 $\frac{\text{수출단가}}{\text{수입단가}} = \frac{\text{수입수량}}{\text{수출수량}}$ 으로 표시된다. 이것은 수출품 1단위에 의하여 획득될 수 있는 수입품의 수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수출품 1단위에 의하여 보다 많은 상품이 획득되면 그만큼 교역조건이 유리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교역조건이 개선되면 무역이익이 증대되고 국제경쟁력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역조건에 의한 국제경쟁력을 평가하는데는 상품교역조건지수와 요소교역조건지수에 의한 분석방법이 있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상대가격에 의한 분석방법으로, 일본통산성(MITI)이 주로 이 방법을 이용해 경쟁력을 분석하고 있다. 즉, 일본통산성에서는 자국상품의 국제경쟁력을 OECD 통계를 이용하여 OECD 가맹국을 모집단으로 하는 무역수지율을 기초지표로 취하고 이 수지율의 변동에서 인플레이션의 영향요인을 제거한 수지율의 개선을 그 국가의 경쟁력의 증대로 보고 있는데, 이는 국가를 분석단위로 하는 방법이다.

세번째 방법으로는 RCA지수에 의한 방법을 들 수 있는데, 이는 1950년대에 비교 우위론에 의한 McDougall과 Stern의 실증분석을 평가하기 위하여 발라사(Balassa)가 사용한 지표로서 이미 실현된 무역을 통하여 나타난 세계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국제경쟁력을 지수화한 것이다.

기존의 연구는 주로그 분석단위를 국가로 하여 경쟁력 결정요인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이에선 절대우위론, 비교우위론, 상호수요이론, 헉셔-오린정리, 페운티에프역설, 대표수요이론 그리고 제품수명주기이론이 있다. 본 논문은 RCA 지수법을 사용하여 기존의 무역론의 이론을 배경으로 분석의 초점을 산업수준에 맞춰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해보려 한다.

1. 국제경쟁력 결정모델의 정립(결정요인 포함)

기존의 경쟁력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방법인 비교우위론에서 다루지 않는 다음의 사항으로 인해 여기서는 새로운 변수조합으로 경쟁력에 대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비교우위론에서 다루지 않거나 간과하고 있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의 진보

기술의 진보로 첫째, 직접노무비가 전체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졌다. 둘째, 원자재 자체보다 이를 가공(processing) 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셋째, 기술의 진보로 요소부존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수송과 통신에 있어서의 기술의 진보로 지리적 근접성 등의 요인이 경쟁력 결정요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졌다.

(2) 시장여건의 발전

첫째,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투자가 점차 많아짐에 따라 생산성이 계속적으로 증가했다. 둘째, 각국에서의 사회하부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세계 전체 경제의 발전가능성이 높아졌다.

(3) 시장의 범세계화

첫째, 범세계화로 인해 요소들을 전세계의 범위에서 구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제품과 공정기술의 이전이 세계화되었으며 그 속도가 빨라졌다.

(4) 기업의 범세계화

기업의 다국적화 현상이 일반화되어 전략의 국제화가 빈번해 졌다.

(5) 우위요소의 급격한 변화

요소경쟁우위가 빨리 바뀌어 나아가, 하나의 요소경쟁우위에서 또 다른 요소경쟁우위로 경쟁우위의 주원천이 바뀌어 나아가는 것이 보통의 경우이므로, 하나의 요소경쟁우위는 유동적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6) 정부보조의 중요성 감소

전통적 방법의 정부보조도 경쟁력 제고에 별 도움을 안 준다. 또한, 자본자유화가 이루어지는 개방경제체제하에서의 재무보조는 그 실행에 있어 많은 제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상에서 파악한 것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국가경쟁우위의 변천을 국가변수와 기업변수의 상호관련속에 계속되는 것으로 파악하여, 산업수준의 분석하에 각 산업간의 관련성을 국가경쟁력으로 보고, 한 국가의 경쟁력을 단계로 구분하여 파악해 보고자 한다. 새로운 경쟁력 결정변수는 다음의 4가지 전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산업간에 있어서 경쟁력의 원천과 경쟁의 형태는 다르며, 산업내에서 많은 부문(segment)으로 나누어 그 경쟁력의 원천과 경쟁형태를 달리 보아야 하며, 또한 어떤 한 부문에서의 국가의(정부의) 역할은 논외로 하여, 각국에서는 전산업이 아닌 특정산업에서만 경쟁력을 가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같은 국가내에서도 변수의 조합이 산업마다 달라진다는 점이며, 이에 따라 산업간의 경쟁력 정도에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둘째, 범세계화 현상을 염두에 두었을 경우(고전무역이론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 각 기업은 그들의 가치사슬(value-chain)중 어떤 부분을 종종 해외에서 벌이기도 한다. 예컨대, 규모의 경제, 지식의 습득, 해외에서의 브랜드 이미지 형성 등의 이유로 원료, 부품, 기술, 생산, 시장조사활동 등을 해외에서 해외직접투자, 라이선싱, 제휴(Coalition) 등 여러가지 형태를 통하여 수행한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국가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는 소위 '홈 베이

스'의 경쟁력을 말하는 것으로 인식해서 보아야 한다. 홈 베이스란 국가개념과 거의 동일한 것이지만, 한 국가가 어떤 산업에서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i) 기업의 전략이 수립되는 곳, ii) 핵심부분의 공정과 연구활동이 이루어지는 곳, iii) 필수적이며 적절한 생산기술이 있는 곳의 세가지 조건이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지역을 홈 베이스라 하는데, 여기에서의 기업은 무역과 해외직접투자, 그리고 다른 여러 형태의 활동의 조합을 잘 맞춰서 범세계적인 단위에서의 기업활동을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한다.

세째, 기업은 혁신(Innovation)을 통하여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혁신은 신제품, 신공정, 마케팅에서의 새기법도입, 새로운 고객의 지각 등 가치사슬상의 모든 활동과정에서 일어난다. 여기에서는 한 특정산업에서의 혁신을 조장해 주는 정부의 역할 —즉, 자금지원, 세제혜택 등—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혁신의 개념은 리카아도 등의 고전적인 비교우위의 무역이론에는 전제되지 않는 것이다.

마지막 전제로는 한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가지는 기업은 시장수요예측, 신기술개발 등을 통해 그 산업에 먼저 진입한 초기진입자 (early-movers)일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 왜 특정 국가의 특정산업부문에서 초기진입 기업이 생기느냐에 대한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경쟁력의 원천에 대한 이유가 설명되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는 거시경제적인 요인의외에도 문화적 요인, 사회 가치관의 요인 그리고 기회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이러한 초기 경쟁력 확보 요인이 경쟁력 결정변수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2. 결정변수

한 국가는 특정산업내에서만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특정산업이 환경에서 접하는 여러 환경변수를 다음의 4가지로 나누어 이들이 경쟁력을 제고시키든지 혹은 저하시킨다고 생각해 보겠다.

(1) 요소(Factor Conditions) 변수

사회간접자본(infrastructure), 숙련노동자, 천연자원 등의 요소적 환경요인을 말한다.

(2) 수요여건(Demand Conditions) 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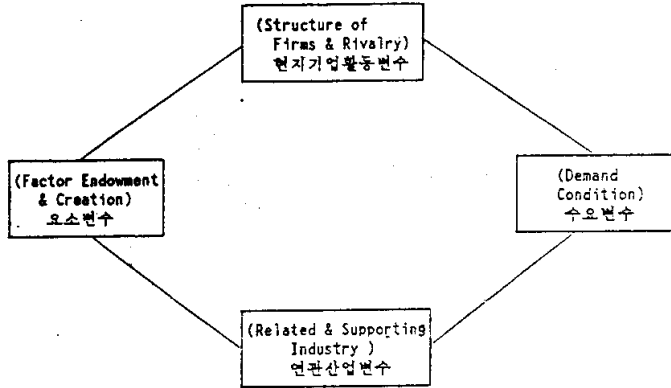
그 산업에 대한 국내수요(home demand)적 환경요인을 말한다.

(3) 연관산업(Related and Supporting Industries)의 발달 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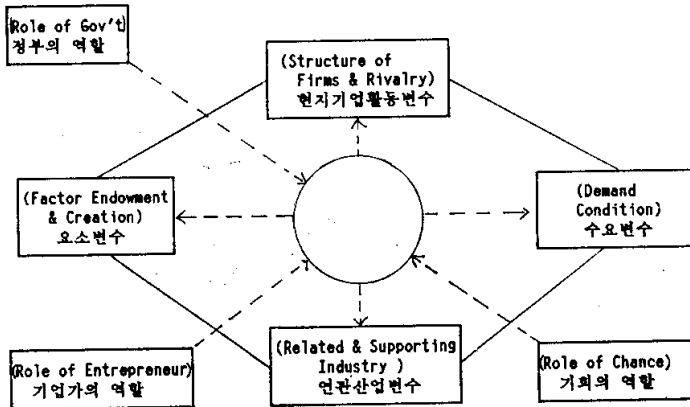
연관산업은 Relatedness(기술, 유통망 등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산업이거나, 특점적 기술이전이 가능한 산업들)가 있는 산업이 존재하느냐의 여부를 말한다.

(4) 현지기업활동(Structure of Firms and Rivalry) 변수

〈그림 1〉 경쟁력결정변수 다이아몬드



〈그림 2〉 확장된 경쟁력결정변수 다이아몬드



기업목표나 전략수행의 여건과 기업의 창립의 난이점 정도, 그리고 국내 경쟁자환경 등의 여부를 말한다.

이러한 4가지 변수는 〈그림 1〉과 같이 다이아몬드형으로 그려져서 경쟁변수의 상호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4가지 변수는 한 산업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상호관계를 가지며 경쟁력제고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4가지 변수 이외에도 위의 다이아몬드 구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독립변수로 구분하기에는 각 국가와 산업에 있어서의 특성의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변수인 정부의 역할과 기업가의 역할, 그리고 기회의 역할이 다이아몬드에 영향을 주는 환경변수로 고려될 수 있다. 이를 고려한 다이아몬드는 〈그림 2〉와 같이 그려질 것이다.

(1) 요소변수(Factor Conditions)

지금까지의 비교우위론에서는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요소들인 노동, 토지, 천연자원, 자본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으로 생산 요소를 분류하여 이러한 요소들의 부존량이 비교우위를 결정짓는다고 하고 있다.

경쟁우위에서의 요소변수는 이러한 정적인 성격에서의 고찰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다음의 세가지 전제를 가지고 단순한 부족량 자체의 크기만의 파악이 아닌 방법으로 요소변수를 파악하고자 한다[Porter, M.(1988)].

첫째, 국가전반에 걸친 요소의 부존량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요소가 특정산업에 어떻게 특화, 심화, 창출되는지에 대한 것과 그러한 특화, 심화, 창출의 수준이 어느정도인가를 파악해 보는 것이다.

둘째, 기술개발의 가속화로 혁신의 영향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요소부존(Factor Endowment)보다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날 요소창출(Factor Creation)이 경쟁력결정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이다.

셋째, 요소에서의 불리점(Disadvantages)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국제적 경쟁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요소의 불리점이 그대로 경쟁력 저해 요인인 것으로 파악해 왔는데, 이러한 불리점은 오히려 혁신의 동기로 작용하여 경쟁력의 제고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요소변수를 요소부존(Factor Endowment)과 요소창출(Factor Creation)로 나누어 고찰해 보겠다.

1) 요소부존(Factor Endowment)

지금까지 요소를 나누는 것을 보면 <표 1>과 같다. 이와 같은 분류는 지금까지 무역이론에서 연구되어진 분류이나, 여기서는 다음과 같이 다섯가지로 분류해 보겠다[Leamer(1984)].

* 인적자원(Human Resources)—기술수준과 인건비수준, 노동시간, 근로윤리 등으로 많은 직종에 공통되는 요인들로 고려할 수 있다.

* 물리적자원(Physical Resources)—여기에는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사항인 수자원, 전력의 풍족성과 접근가능성의에도 기후요인, 위치요인(시장이나 원료조달처와의 상대적거리), 시간대(time zone : 런던의 정상근무시간은 동경과 뉴욕에 겹쳐지기 때문에 금융산업에 유리점으로 작용한다.) 등이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 지식자원(Knowledge Resources)—다시 세분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으며(특정의 분야로 나누어), 과학적, 기술적 그리고 시장에 대한 지식의 함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 자원의 발생은 대학교, 정부 투자 연구소, 기업연구소, 시장조사자료와 많은 데이터

베이스로부터 나온다.

* 재무적자원(Capital Resources)—자본의 양과 비용 정도 및 접근성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국가의 자본시장 구조 및 수급 상황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으나, 자본시장의 범세계화(globalization) 현상이 널리 퍼지고 있으므로 점차 그 중요도는 어느 단계(자본시장의 자유화가 이루어진 시점으로 후술되는 단계 구분에서는 2단계)에 이르러서는 약해지리라 본다.

* 사회간접자본(Infrastructure)—유통, 통신, 은행, 보건, 주택, 문화 시설 등과 같은 경쟁력 제고의 기본 요인으로서 한 산업에 국한되지 않는 국가 변수로 볼 수 있다.

요소 부존은 그러나, 범세계화와 기술의 진보 그리고 요소의 해외조달(foreign sourcing) 등으로 점차 동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므로 그 중요성은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2) 창출 요소(Factor Creation)

앞에서 언급한 부존요소는 일반적으로 그 국가에서 별다른 노력없이 취득하는 경쟁우위의 원천인데 비하여, 창출 요소는 투자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즉 부존요소와의 상관성이 적은 가운데 나타나는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Scott & Lodge(1986)]. 창출요소는 부존요소의 개선/특화 요소보다 더 투자를 요구하는 성격을 띠며, 투자에 의해서 창출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요소의 창출은 정부, 기업, 그리고 정부—기업의 협조하에서의 투자를 통해서, 인적 자원, 지식 자원, 재무 자원, 사회간접자본 등에서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러한 창출은 산업마다 그리고 국가의 특성에 따라 그 과정에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으나 대체로 다음의 표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요소의 창출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표 1> 요소의 창출

요소주체	국	가	기	업	국가—기업
인적 자원	* 교육제도 * 직업훈련제도 * 군대		* 사립교육기관 * 사내 교육		
지식 자원	* 정부지원 대학 * 정부지원 연구소		* 기업연구소 * 전문용역업체 * 해외로부터의 라이선싱 * 무역 연관단체		* 산학연계제도
재무 자원	* 정부 재정 * 의채		* 개인 저축		
사회간접자본	* 국가의 투자		* 개별기업의 투자		

이러한 창출 요소는 한국에 있어서는 주로 모방을 통해서 주로 일어나고 있는데, 초기 단계에 있어서의 기술 이전과 외채는 요소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3) 불리요소의 극복

불리요소의 극복은 주로 다음의 세가지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첫째, 대체재의 개발이다. 원재료(기초 요소)의 구입이 힘들거나 불가능해질 때에는 공정이나 기술의 혁신을 통하여, 새로운 대체재를 개발하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자동화(Automation)이다. 계속적인 인건비의 상승과 함께 노조의 강화 등으로 인하여 미숙련, 반숙련 노동자를 대체하려는 노력으로 자동화 추세가 진행된다. 세번째로는 요소의 해외 조달이다. 즉, 핵심 공정이나 부품은 그대로 두고, 그렇지 않은 공정(예컨대 단순 조립 공정)이나 부품은 해외의 경쟁력있는 국가로부터 취득하여 거기에서 비롯되는 요소 우위를 이용하는 것이다.

(2) 수요변수(Demand Condition)

요소변수에 이어 두번째의 변수로 본국 수요변수를 들 수 있다. 전제에서 '홈 베이스'의 개념을 언급하였는데, 일찌기 린더는 그의 상호수요이론에서 1인당 GNP가 비슷한 국가끼리의 무역량이 많을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국내수요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그 산업에서의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시험시장으로서의 국내시장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Linder (1961)]. 수요변수는 특히 여기에 근거하여 본국 수요의 조건을 변수로 정하였다.

전통적인 수요변수는, 요소변수에 비하여 더욱 정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어 시장규모의 급격한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수요조건인 동적인 역할에 대하여는 간과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시장규모 자체를 수요변수로 보는 양적요인만의 파악이 아닌, 세분 시장마다의 다른 특성은 곧 수요조건인 변화를 급격히 가져오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서, 이러한 특성이 경쟁력의 원천으로 작용한다고 파악하여 이를 수요의 질적요인(quality in demand condition)으로 정의하여, 경쟁력 원천을 파악하는데는 후자를 강조하여 결정 변수로서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수요의 질은 크게 수요자의 성향, 시장의 성장율과 성장과정, 시장의 국제화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이 중 수요자의 성향은 수요의 특성을 결정짓는 주요인이며, 나머지 둘은 이를 강화시켜 주는 촉진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요의 질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요자 성향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욕구를 알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한 규모와 시점은 그 산업의

형성에 중요한 요인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한 기업에 있어서의 본국 수요의 중요성은 첫째, 그 산업에의 관심을 갖게 되기에 적절한 곳이 본국시장이라는 점과 둘째, 소비자 욕구의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곳이 본국시장이라는 것으로 집약해서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수요의 질을 정의할 때, 여기에 있어서 본국 시장의 소비자 특성은 경쟁력 원천으로서의 수요 변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요자 성향은 다음의 4가지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다[Grubel & Lloyd(1975)].

* 시장의 세분화

세분시장은 비슷한 수요자 욕구를 하나로 묶어 기업에게 대상을 인식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세분시장의 상대적 크기와 세분 시장의 넓이의 두가지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분시장의 상대적 크기는 절대적 크기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는 그 국가내에서 특정 산업에 대한 수요의 점유율이 다른 나라에서보다 더 커서 그 국가의 기업들의 이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즉 고조된 관심을 통하여 그 기업은 공정과 제품의 개선에 다른 나라(상대적 크기가 적은 국가)보다 더 주력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그 국가는 생산과 마케팅에서의 경쟁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국의 세분시장 구조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은 세분시장의 넓이다. 왜냐하면 이에 따른 공정이나 제품이 많은 다양한 수요에 민감해져서 혁신에 더욱 충실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수요자 욕구의 고도화

한 산업에 있어서의 수요자의 욕구의 고도화는 매우 강력한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수요자 욕구의 고도화를 낳는 이유로는 다음의 네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 유통망이나 최종 소비자층이 두터울 경우 이에 따른 수요자욕구의 고도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점이다. 두번째로는 역사적이고 사회적 이유에서 비롯되는 요인들로서 그 국가의 수요자의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전통에 따라 이에 관계되는 산업에 있어서는 오랜 기간동안 소비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소비자욕구의 고도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세번째로는 정부간섭이 적은 산업의 경우로 즉, 동산업이 타국에 비해 정부간섭이 적은 경우 타국에 비해 더 많은 수의 기업의 참여가 이 산업내에서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소비자의 욕구도 고도화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 산업의 소비자로서의 연관산업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 이에 따른 소비자 욕구의 고도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소비자욕구가 고도화될 경우에 자연스럽게 기업은 혁신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그 산업에서의 경쟁력의 원천으로서, 소비자욕구의 강화라는 질적 요인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 소비자성향의 엄격화와 집중화**

본국에 있어서의 수요가 어떤 특정한 성향을 강하게 요구할 때 이에 의해서 그러한 산업의 발전이 뒤따르게 되며, 경쟁력을 갖게 된다. 법적 규제나 소비자보호운동, 물리적환경, 문화적특성 등에 의해 엄격하며 집중된 수요성향이 요구되게 되며, 이에 의거한 기업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한국이나 일본에 있어서의 에너지 절약형기계에 대한 수요성향이나 미국에 있어서의 노동력절약 수요성향 등은 이에 의거한 산업의 발전을 가져오게 한다. 최근의 엔화의 강세에 따른 경쟁력제고를 위한 일본에서의 노무비절감 노력은 동시에 공장자동화의 성향을 가져오게 되어 일본의 로봇트산업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소비자의 문화적 특성에 따른 수요의 집중화에 따라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산업으로 발달한 예로는 일본의 펜산업, 고속도로에서의 속도제한이 없는 독일에서의 경주용 자동차산업의 발달, 그리고 미국에 있어서의 패스트푸드산업을 들 수 있다.

*** 선도적 구매자 욕구**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본국의 구매자의 욕구는 그 국가의 기업으로 하여금 그 구매자 욕구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준다.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선도적인 구매욕구가 일어나는 원인은 많이 있을 수 있으며 다음의 세가지 원인은 그 대표적이다. 첫째, 그 국가의 정치, 사회적 가치관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이다.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 국가인 스칸디나비아국가의 장애인용 장비산업에서의 경쟁력확보의 사례는 이러한 정치, 사회적 가치관이 그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Porter(1988)]. 두번째로, 부존요소의 열위에서 일찌기 구매자가 생성되는 경우이다. 즉 요소열위를 극복하려는 노력에서 타국에서보다 먼저 그 산업에 대한 구매자욕구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세번째로, 그 국가에 있어서의 엄격한 규제로 인하여 그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 타국에서 보다 먼저 그 산업에 대한 구매자 욕구가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이다.

2) 본국수요의 크기와 수요의 성장특성

본국시장의 질적특성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본국수요의 크기와 수요의 성장특성은 이러한 질적특성을 강화시켜 주는 요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 본국수요의 크기**

본국수요의 절대적인 크기에 대하여는 그것이 규모의 경제를 이룩할 수 있는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는 견해와 함께, 제한된 본국수요에의 타개책으로서의 해외진출이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는 상반된 두 견해가 있다[Porter(1988)]. 그러나 규모의 경제나 학습의 효과 등을 창출하기에 충분한 국내시장이라는 조건은 시장의 범세계화에 따른 시장의 확대라는 현상을 볼 때 큰 설명력을 갖지 못한다. 우리나라에서의 조선업의 발전이 그 좋은 예이다. 그러므로 본국수요의 절대적 크기는 앞에서의 질적 특성과 더불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로, 큰 수요시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선도적 구매자 욕구와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본국기업은 투자대상과 그에 따른 경제성 평가에 있어서 이점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수요예측이 용이하다는 점이며, 세번째는 본국에서와 마찬가지로의 세분시장이 해외에서도 존재할 때 그 해외시장에 대하여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본국의 시장의 절대적 크기가 클 경우, 이에 포함된 독립적 구매결정자의 수가 증가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구매자의 권한이 강화되어 수요성향에 있어서 업격성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절대적 크기는 재투자와 성장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 수요의 성장특성

본국시장의 크기가 클수록 기업의 재투자기회는 많아지며 이에 따라 성장율이 타국에 비해 높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경쟁력제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본국수요의 성장특성과 관련해서는 성장율, 선도 수요의 발생, 선도적 시장포화의 세가지로 나누어 경쟁력의 원천을 알아 볼 수 있다.

첫째로, 성장율 자체에서 경쟁력원천을 파악해 보면, 성장율이 높은 산업은 공격적 투자의 기회를 갖게 되어 그에 따라 신제품, 신공정, 신기술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경쟁력제고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 기술의 수명주기가 대단히 짧아지고 있는 몇몇 산업에서는 성장율이 높은 국가의 산업일수록 더 큰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가 이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장율의 크기는 후술되는 기업가의 위험감수와의 함해질 때 경쟁력의 원천으로서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두번째로, 선도수요의 발생이다[Vernon(1966)]. 버논의 제품수명주기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선도수요의 발생은 그 산업으로 하여금 진입장벽의 비용을 없애 준다는 것이다.

세번째로, 선도적인 시장포화 현상이다. 타국에 비해 먼저 본국 시장이 포화되면, 본국 시장에서는 가격인하요구, 새로운 모델의 개발의 요구, 새로운 서비스의 요구 등이 일어

나며 또한 고급형 모델의 출현에 대한 요구도 발생하게 된다. 동시에 기업간의 경쟁을 격화시켜 더 크며 강한 경쟁력을 지닌, 혁신에 성공한 기업만을 남기게 된다. 이러한 기업은 곧 해외진출을 해야 한다는 필요인과 더불어 격심한 경쟁을 통한 경쟁력제고를 통하여 해외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필수 요인을 가지면서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해외건설업은 이에 적합한 예가 될 수 있다. 1950년대의 전후복구로 인한 건설업에의 투자는 60년대에 들어와 국내 건설시장의 포화를 가져왔고, 70년대에 들어와 이의 타개책으로서 해외진출을 고려하게 되었고 아울러 토목공사에서의 국내경쟁 상황은 국제적 경쟁력을 낳아 중동으로의 진출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 본국수요의 국제화

수요의 범세계화, 동일화 현상은 다국적기업의 출현과 더불어 여러 산업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Bartlett(1985)]. 이러한 현상은 한 국가에의 산업의 해외진출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본국수요의 국제화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의 이유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본국수요자의 국제화이다. 본국수요자가 해외에서 구매행위를 할 때 본국의 제품을 찾게 된다는 것과 다국적기업이 해외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때 지금까지 거래가 있어왔거나 친숙한 본국기업의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호텔산업, 신용카드산업, 패스트푸드산업과 턴키베이스 방식의 엔지니어링산업 등 여러 산업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둘째, 부수적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연쇄적 국제화이다. 구매자가 되어 이 산업들로 하여금 국제화를 하게하는 것으로 특히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과 이에 연관하여 보험, 금융, 수송산업의 발전을 가져오게 한다. 아울러 건설, 엔지니어링산업 등이 철수한 후에도 이들 산업은 그대로 남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셋째, 본국수요 자체의 국제화이다. 이는 본국수요에 걸들여진 해외 구매자가 본국에서 다시 그들의 모국으로 돌아가서도 본국수요형태를 유지하는 것과 한 제품에 있어서의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국가의 경우 그들의 전문자료 등을 통하여 해외 구매자를 본국수요형태와 동일하게 유지 할 수 있으며 영화 등의 문화수출, 정치, 사회적, 인종적 연대(예컨대 영연방, 해외학교의 수요형태 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곧바로 해외에서의 국내수요를 낳아서 수요층을 두겹게 하는 효과를 가져와 경쟁력을 제고시키게 되는 것이다.

3) 수요변수의 상호작용

지금까지 본국수요의 질적 특성, 양적 특성 그리고 국제화 특성에 의한 수요변수의 경쟁

력 원천에 대하여 알아 보았는데, 이러한 변수들이 상호작용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양적인 특성으로서의 시장의 절대크기 보다는 질적 특성으로서의 상대적 크기가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학자들은 지적한다[Grubel and Lloyd(1975)].

(3) 연관산업 변수

요소변수, 수요변수에 이어 세번째로 연관산업변수를 국제경쟁력 결정요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Porter(1988)]. 연관산업은 수직적 연관산업(Supporting industry)과 수평적 연관산업(Related industry)으로 나뉘어져 경쟁력 원천이 구해진다.

1) 수직적 연관산업에서의 경쟁우위 확보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상류부문산업(Upstream industries)은 특히 하류부문산업(downstream industries)발전의 기폭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수직적 연관산업에서 비롯되는 경쟁력의 원천은 다음의 4가지 원인에서 발생한다.

첫째, 공급되어지는 원료나 부품의 질이 뛰어난 경우이다. 즉 부품산업 등에서의 국제적 경쟁력은 완제품 제조산업에까지 파급된다는 것이다.

둘째, 수직적 연관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정혁신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측면이다. 즉 연관산업으로부터 정보, 인력, 기계 등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피혁 산업과 화학산업의 발전을 통해 의류산업은 끊임없이 신소재개발을 통해 발전해 나아갈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경쟁력의 제고를 가져오고 있다.

셋째, 한 산업은 수직적 결합관계에 있는 다른 연관산업으로의 진출에 있어서 진입장벽 및 진입비용이 그렇지 않은 산업으로부터의 진출시 보다 낮다. 즉, 하류부문산업으로의 진출이 용이해지는 것이다. 이는 수요자 욕구를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원료나 부품에 있어서 우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그래서 상호간의 인력, 기술 및 공정의 상호이용도 가능한 것이다.

2) 수평적 연관산업에서의 경쟁우위 확보

수평적 연관산업은 가치사슬에서의 기업활동을 공유하고 있다. 즉, 기술개발, 제도, 유통, 마케팅 그리고 서어비스까지 공유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연관산업으로의 경쟁력 전이현상은 문화적인 친밀도 등으로 인해 국내기업끼리의 경우에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이현상이 일어나는 시점은 최초의 산업에서의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거나 시장수요가 감소할 때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4) 현지기업활동 변수

요소변수, 수요변수, 연관산업변수에 이어 국제경쟁력의 4번째 결정요인으로 현지기업활동 변수를 들 수 있다. 현지기업활동변수란 한 기업이 생성, 조직, 운영과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전체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경쟁력의 원천이다. 한 기업의 전략과 추구하는 목표는 국가마다 다른 점을 나타내고 있는데, 한 국가의 산업특성과 기업의 전략이 서로 적합하게 될 때 거기서 경쟁력이 생성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기업차원의 변수와 산업차원 변수로 나누어 분석해 보아야 한다.

1) 기업차원의 변수

* 국내기업의 전략과 조직

기업의 전략과 또한 조직형태는 국가마다 상이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는 곧 국가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전략 및 조직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권위와 계층에 대한 국민의 태도, 노동자와 사용자와의 관계 및 위상, 개인행동과 집단행위에 대한 태도 등 교육제도과 가족제도, 사회적 종교적인 원인에서 비롯되는 질적요소이다.

이러한 질적 요인에 따라 기업의 전략과 조직은 국가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회사의 규모의 경우, 국가별로 특성을 나타내서, 한국과 대만의 경우나 독일과 이태리의 경우, 전자의 경우 대기업이 환경에 적응을 잘 하는데 비해 후자의 경우 중소기업이 그 국가환경에 적응을 해 나아간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소비재산업의 경우 이태리나 대만에서 서독이나 한국보다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소비자와의 관계, 경쟁의 사고방식, 노사관계 등에 따라 또한 경쟁력원천은 달라질 수 있다.

질적 요인과 더불어 그 산업구조의 국제화성향도 기업의 전략과 조직형태에 영향을 끼쳐 큰 경쟁력 양상을 보이게 한다. 즉 그 기업의 전략이나 조직이 범세계적시장을 향하였을 경우에 더 큰 국제경쟁력이 확보된다고 할 수 있는데[Chandler(1986)], 이러한 국제화의 구조를 일으키는 요인이 있으면 이는 경쟁우위요소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향 원인으로서는 첫째, 국내시장의 포만상황, 둘째, 그 세분시장에서의 국제수요의 창출, 세 경영자의 태도 등이 있는데, 이와 더불어 사회-문화적 요인으로서 경영자의 언어습득력, 해외여행의 경험 등과 그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네째, 정부의 정책과 마지막으로 정부 상황과 외국원조계획 등에 의거하였을 경우를 국제화 성향에의 기업구조변수로 꼽을 수 있다.

기업과 개인의 목표추구

기업과 그 조직내의 개인의 목표 및 동기부여는 국가에 따라 그리고 산업특성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기업의 목표추구노력은 최고경영층과 소유자의 동기부여에서 비롯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과 같이 소유의 분산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는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그 국가의 자본시장의 조건에 맞는 산업일수록 조직유효성을 높일 수 있다. 즉, 미국과 같은 자본시장을 갖춘 경우에는 대기업화하기가 쉬우며, 혁신에의 금(즉,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본)을 사용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하므로, 기술혁신이 용이해질 수 있는 것이다.

개인의 동기부여는 그 동기부여가 높을 경우 그 산업전반에 걸친 경쟁력은 향상될 것이다. 이러한 동기부여의 원천으로는 다음의 4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세금구조에 관한 사항이다. 누진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수입을 위해 일하기 보다는 회사의 기여를 위해 일하는 개인의 태도가 형성될 수 있다. 즉 코오디네이션 능률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부세에 의사결정과정은 늦어질 것이다). 둘째, 특정지역에 대한 개인의 선호이다. 셋째, 부에 대한 태도이다. 유럽사회(특히 사회보장제도의 기반하에 높은 소득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스칸디나비아제국)보다 미국은 부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 사고를 갖고 있으며, 우리나라 경우도 후자의 경우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넷째, 자기의 전문직에 대한 높은 가치부여인데 이는 높은 조직몰입을 가져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인에게 있어서의 위험에 대한 태도도 개인의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직과 개인차원의 변수에 이어 국가적인 가치부여경향도 개인이나 기업의 동기부여에 영향을 준다. 또한 가용자원의 개발정도에 따라 또한 동기부여의 정도는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2) 산업차원의 변수

* 본국에서의 경쟁자

국내에서의 경쟁의 격화는 적절한 규모의 경제를 이룩할 수 없으며, 독점상황이 경쟁을 제고한다고 한다[Williamson(1983)]. 그러나, 그 독점상황이 유리하다는 산업에 있어 국내기업간의 경쟁은 격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전산업에서의 삼성, 금성, 대우, 조선에서의 현대, 대우, 삼성, 자동차에서의 현대, 대우, 기아, 반도체산업에서의 삼성, 현대, 비디오테이프산업에서의 새한미디어, 금성, 선경, 코오롱 등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의 경우 대부분 본국에서 강력한 경쟁기업을 갖고 있다. 자동차산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일본의 경우 11개회사가 서로 경쟁하고 있으며 가전산업의 경우 9개회사, 반도체에서는 7개회사가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고 경쟁하고 있다[산업연구원(1988)].

이러한 국내의 경쟁자는 기업으로 하여금 새로운 형태의 경쟁우위를 만들도록 한다.

인하, 투입요소변경, 서어비스수준변경 등을 가져오도록 하는데, 그러나 이러한 가시적인 효과 이외에도 국내에서의 경쟁상황은 다음의 다섯가지 측면에서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준다.

첫째, 강한 국내의 경쟁기업을 상호간의 기업활동에 있어력 기술혁신의 압력 및 국제화 압력을 준다.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에 있어서의 과점적 행동은 이의 좋은 예이다[Knickerbocker(1973)]. 한 경쟁기업의 성공은 곧 다른 경쟁기업에 영향을 주어 상호작용을 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경쟁의 격화는 회사차원에서만 존재하지 않고, 이러한 경쟁이 개인의 수준까지로 이되어 나아가 개인의 기술혁신의도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경쟁의 격화는 지금까지의 요소변수에 있어서의 우위점을 상쇄시킴으로써 새로운 경쟁원천을 찾게하여 국가차원에서의 새로운 요소변수를 창출시킨다.

넷째, 한 산업이 있어서의 경쟁의 격화는 연관산업부분으로의 진출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이에 따라 그 국가전체에서의 경쟁력이 생기게 된다.

마지막으로, 경쟁의 격화를 통해 그 산업전체의 협상력(정부의 규제에 대한)이 커진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정부의 간섭은 특히 혁신단계에 있어서의 장애요소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정부에 대한 협상력을 제고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내경쟁의 특징적인 현상으로는 지역적 밀집을 들 수 있다. 각국에서 이 현상은 공통적 것인데, 이는 집중화에 따른 이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며, 그 예로써는 뉴욕의 매디슨거리(광고), 독일의 즐링겐지역(양식기, 칼), 그리고 우리나라의 구미(전자산업), 부산(선발산업) 등을 들 수 있다[Porter(1988)].

각 국에 있어서 산업별로 적절한 경쟁자의 수(규모의 경제에 맞는)에 대하여는 각 국의 장상황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4대재벌이 대부분의 경우 그 산업에서의 경쟁을 이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대체로 3~5개 회사가 적절한 경쟁상황으로 보고 있다.

* 진입장벽의 존재

새로운 기업의 설립은 그 기업이 속한 산업과 국가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낳는 요소의 창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새로운 기업의 설립은 국내의 경쟁상황을 강화하여 앞에서 급한 경쟁의 격화에 따른 경쟁우위확보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기업의 설립의 정도가 쉬울 때(즉,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지 않을 때로서 아직 진입의 여지가 그 산업에 있을 때), 경쟁력의 제고는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

기업의 설립은 완전한 신참기업의 설립과 연관산업으로부터의 진입, 그리고 국제적인 진입의 세가지 방법으로 일어난다. 완전한 신참기업의 설립은 개인의 동기부여에서 오는 것

이며, 연관산업으로부터의 진입은 위험감수 의도와 본래의 산업에서의 시장의 포화상태, 그리고 요소의 전이 등 세가지 이유에서 벌어지는 것이다.

기업의 설립과는 다른 경로로 그 산업에 진입하는 방법으로는 흡수합병(M & A)의 방법이 있는데, 흡수합병은 주로 더 큰 기업에서 작은기업(다른 산업에 속해 있는)으로의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는 경쟁상황 강화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면 오히려 경쟁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서 기술혁신이라든지 재투자성향을 낮출 수가 있다[Scherer(1982)].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흡수합병의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는 그 산업에의 진입장벽이 정부의 간섭(산업조정으로 인한 신규기업설립이 불가능한 경우를 뜻함)으로 왜곡되어 인위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로서 일반적인 흡수합병의 경우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5) 그 밖의 변수

1) 정부의 역할

정부의 역할은 5번째 변수로 넣을 수 있을만큼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성향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산업 등의 경우 그 산업의 특성상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각 산업에서의 공통적 상황이 아니며 산업이 고도로 발달시에는 저해가 되기까지 하므로, 정부의 역할을 하나의 독립된 변수로 보지 않고 영향변수로 파악해 보았다.

이러한 정부의 역할은 4개 기본요소에 모두 영향을 준다. 요소변수에게는 보조금, 금융시장정책, 교육정책 등을 통하여 영향을 주는데, 자본비용의 경감조치, 시장보호정책, 보조금 지급정책 등은 분명히 요소변수에 正의 영향을 준다. 그러나 기본요소가 아닌 특화요소에 있어서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

수요조건변수에서는 첫째, 제품기준(예컨대, KS, UL, JIS 등)을 만들어 일정기준이상의 수준의 제품만을 수요자가 선호하도록 시장조건을 바꾸며, 둘째, 정부자체가 큰 수요자로서의 역할을 하여 양적 요인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항공산업, 방위산업, 통신산업에 있어서 이러한 영향은 크다고 하겠다. 셋째, 초기수요를 진작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정부기 특정제품 사용을 법제화하여 양적 요인에 正의 영향을 주도록 한다(동시에 초기규제로 인하여 경쟁력제고에 치명적 영향을 주기도 한다).

연관산업 변수에서는 서서비스의 규제, 광고수단의 규제 등을 통하여 영향을 미치며 현지 기업활동변수에서는 금융시장조치, 세금정책, 특과점정책 등을 통하여 개인과 조직인 기업의 정책, 동기부여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러한 정부의 역할은 그 자체만으로는 경쟁력의 원천이 되지 않는다. 또한 정부의 역할

은 그 국가의 경쟁력의 단계가 높아질수록 산업의 집군화 현상의 심화에 반하여 그 역할이 계속적으로 줄어들어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기업가의 역할

기업가는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가정신은 그 환경이 적합한 특정산업에서만 벌어진다. 수요조건 변수는 이러한 기업가의 역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수요조건성숙이 있는 환경속에서 기업가는 그 산업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원천기술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서, 또한 요소변수에 있어서의 우위점이 없는 가운데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된 예가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3) 순수기회의 역할

마지막으로 고려할 수 있는 변수는 순수기회이다. 이는 그 성격상 단속적(non-consistent)이며, 예측불가능한 변수이다. 그러므로 앞의 제 변수와 동등하게 그 역할에 대하여 말할 수는 없으나(즉, 각 단계에 있어서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하여 규정적으로 밝힐 수 없으나), 국가내외에서 발생하는 기회는 경쟁력의 강화에 큰 역할을 해 온 것은 많은 사례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중등건설붐으로 인한 해외건설업의 경쟁력확보, 60년대의 중국에 대한 금수 조치로 인한 가발산업에 있어서 경쟁력확보(해외수요의 확보를 통한) 등의 사례에서도 기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중요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순수기회의 형태는 대체로 다음의 8가지로 나누어보는 것이 일반적이다[Porter (1988)]. 전쟁, 정치적사건, 획기적인 기술혁신, 오일쇼크 등의 요소변수의 급격한 변화, 환율의 급격한 변화, 수요의 급작스런 변화(유행), 각국에 있어서의 성장단계의 시점의 차이, 국가환경과는 유리된 과학적 발견이 그것인데, 이러한 기회변수는 각 국과 또한 각 산업에 있어서 상이한 영향을 주게 되므로, 경쟁력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3. 변수들간의 상호연관성

(1) 요소변수의 상호작용

전술한 바와 같이 요소변수에는 부존요소와 창출요소가 있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정부, 기업, 그리고 혼합형태의 투자에서 비롯되는 창출요소이다. 이러한 요소변수는 나머지 세 변수에서부터 영향을 받아 강화되어 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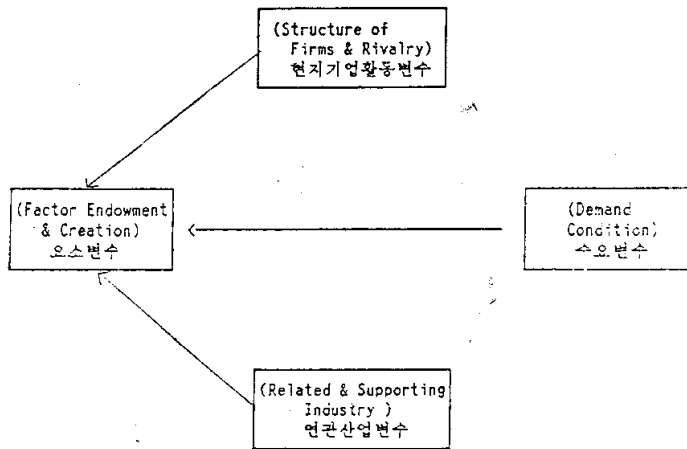
수요변수는 요소의 창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수요자의 요구가 엄밀하고 고도화되었을 경우에 이에 맞춘 계속적 재투자가 일어나 새로운 요소의 창출이 일어나는 것이다.

두번째로 연관산업내에서의 영향이 요소의 창출에 미친다. 즉, 정부, 교육기관, 회사, 개인으로부터 비롯되는 기술과 자원은 다른 산업으로 전이되어 요소의 창출을 일으킨다. 또한 연관산업에서의 불리요소는 이에 따른 기술혁신을 불러 일으키게 되어 다른 산업에서의 불리요소 극복의 노력으로 나타나 새로운 요소창출을 하게 된다.

세번째로 한 산업내에서 인지되는 위협요소(새로운 진입자)와 그 산업내의 경쟁자는 요소창출의 노력을 강화시키게 된다. 또한 기업과 개인의 노력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높은 환경은 개인과 기업으로 하여금 불리요소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요소의 창출은 역시 부존요소에서 특화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장시간에 걸친 상호작용으로 그 산업은 집군(cluster)을 이루게 되어 그 집군내에서의 요소의 창출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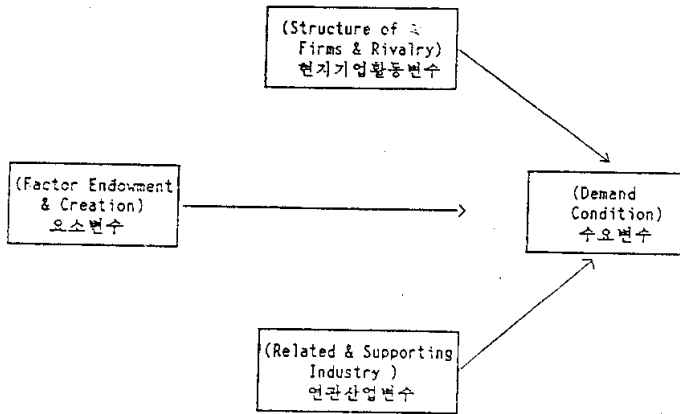
<그림 3> 수요변수메의 작용



(2) 수요조건변수메의 상호작용

수요변수는 인구의 크기, 기후, 문화적 요인 등의 양적 요인과 더불어 수요자 성향과 같은 질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이러한 수요변수에 대하여 나머지 세 변수는 다음과 같은 영향을 주어 수요변수를 강화하여 간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본국에서의 경쟁상황이다. 마케팅, 제조, 서어비스 등 모든 면에서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수요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경쟁이 가속화되면 이에 따른 수요층의 확대를 가져오는 물론이고, 질적 요인도 더욱 충족시키게 된다. 특히 마케팅에 있어서 수요자인 소비자로부터의 요구는 기술혁신의 큰 동기가 되는 것이며, 그 결과 수요의 질을 다시 향상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림 4> 수요조건에의 상호작용



연관산업변수도 역시 수요변수를 강화하여 준다. 연관산업의 수준과 수요자에게서의 평가가 높을 경우, 그러한 수요자 성향은 다른 산업으로 전이되어서 수요의 질적 요인을 강화시킨다. 또한 국제적 수요를 자극하게 하여 연관산업에서의 수요는 다른 산업으로 전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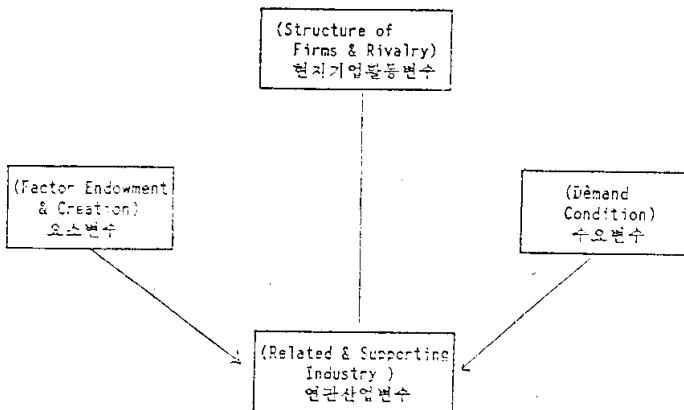
수요변수는 일반적으로 수요변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그 요소변수가 고도화 되었을 경우에 이러한 요소에 대한 해외수요자의 인식을 제고시켜 양적 요인을 강화한다는 성격이 있다.

(3) 연관산업변수에의 상호작용

연관산업변수는 본국수요의 크기와 성장율이라는 양적요인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성장율이 높을 경우 연관산업에의 투자는 확대되어 집군의 고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국내경쟁상황의 확대는 연관산업에 있어서의 특화를 가져 온다. 수요변수도 기술,

<그림 5> 연관산업변수에의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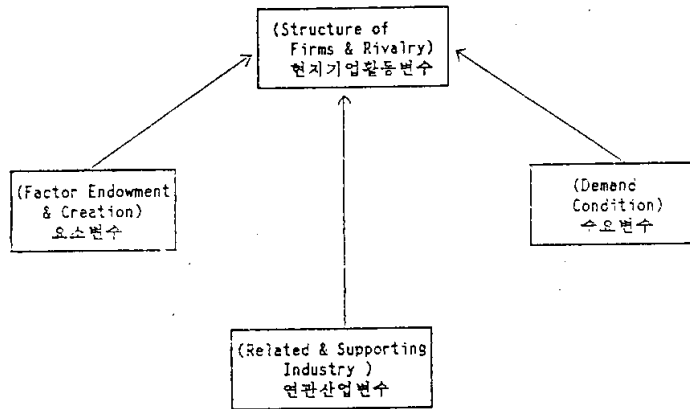
지식 등의 전이현상이 벌어져서 연관산업변수를 강화해 나아간다. 미국의 컴퓨터산업과 소프트웨어산업에서의 요소변수의 상호이동을 통한 경쟁력 강화는 그 좋은 예이다[Porter (1988)].

(4) 현지기업활동변수에의 상호작용

본국수요자의 수요성향의 고도화는 경쟁상황에 강하게 영향을 준다. 연관산업의 발전은 상호경쟁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새로운 경쟁자는 완전한 새로운 기업, 수직적 연관산업으로부터의 기업, 수평적 연관산업으로부터의 기업의 세가지 원천에서 생길 수 있으므로, 연관산업의 발달은 경쟁상황을 강화시키는 큰 요인이 되는 것이다.

또한 요소변수는 그 요소를 이용한 기술과 경험을 새로운 기업에게 주어 역시 새로운 경쟁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강화된 경쟁상황의 격화는 집군의 강화를 가져와서 결국에는 경쟁력의 원천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6> 현지기업활동변수에의 상호작용



III. 1단계접근 : 한국이 국제경쟁력을 갖는 산업의 추출

1. 방법론

한국이 국제경쟁력을 갖는 산업을 추출하기 위해서 우선 한국이 국제경쟁에서 성공한 모든 산업을 알아보고 이러한 산업의 패턴을 조사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이때 대상이 되는 산업은 가능한 한 자세히 정의하여 모호함을 피하였다(예 : 농기계산업 대신 농업용 트랙터산업으로). 국제경쟁력을 갖는 산업은 전세계 수출중에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세계 시장점유

을)이나 순 무역수지 등의 유의성있는 실적치를 사용하여 결정하였다. 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자료원에서 나온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주로 사용된 것은 UN 국제무역통계연보이며, 산업의 시대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1971, 1978, 1985년 등 세 시점에서 조사하였다. 또 여기에서 나온 결과를 독일, 일본, 이태리, 스위스, 영국, 미국 등과 비교하여 보았다.

(1) 국제경쟁력을 갖는 산업의 도출

이것을 도출하는데는 두 단계를 거친다. 첫째, UN 무역통계에서 SITC 3, 4, 5 자리의 산업들 중 그해에 한국의 평균 세계시장 점유율을 초과하는 산업을 선정하였다. 참고로 한국의 평균 세계시장 점유율은 전세계 총 수출량의 1.74%였다. 이렇게 하면 한 국가가 비교우위를 갖는 산업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SITC 4자리, 5자리 등 가능한 한 세분화된 산업을 선택하려고 노력하였다.

두번째로 위에서 선정된 산업 중에서 무역수지가 적자인 산업을 제외하였다. 그 이유는 무역수지 적자인 산업이 경쟁력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시장 점유율이 특히 높은 경우에는 적어도 그 산업중의 어느 한 부문을 경쟁력이 있다고 보아 포함시켰다. 그런 후에 세계무역 중에 차지하는 비중, 수출액, 수입액, 순 무역수지, 그리고 주어진 산업에서의 한국의 수출비중 등의 수단을 사용하였다.

(2) 국제적 성공산업에서의 집군도(Cluster Chart)

집군도란 한국의 경쟁력 있는 산업의 패턴과 그들간의 관계를 잘 드러내도록 모든 해당 산업을 표시(display)해 놓은 차트를 말하며, 이는 최종 소비용도별로 그룹화되어 있다. 집군도의 맨 위쪽에는 상류부문(up-stream part), 즉 다른 여러 산업들에도 사용되는 제품이 있다. 중간에는 여러 산업에 쓰이거나 보조용도를 갖는 최종소비품이 그리고 맨 아래에는 직접적으로 소비자 수요와 연결되는 최종 생산품이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표제하에 최종생산품, 생산에 사용된 기계, 특화된 투입물과 생산품이나 그 생산에 관련된 서비스 등으로 산업이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분류하면 성공적인 산업간의 수직적 관계나 집군의 깊이(depth)를 알 수 있다.

한국의 산업 집군도를 보면 국제경쟁력을 갖는 산업들간에는 상당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도출된 집군(cluster)에서 한국경제의 경쟁력 패턴을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첫번째 패턴은 주어진 산업군(industry cluster)에 의해 나타난 한국수출의 묶(SCE)이다. 이는 주어진 산업군에 의해 나타나는 세계 산업군 수출중의 점유율로 표시되며, 여기서는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도록 조정된 산업군을 사용했다.

국가간(with and across nations) 분석은 1978, 1985 양차례에 걸쳐 행해졌는데, 패턴을

가려내기 위하여 특히 3가지 수직적 단계내에서의 변화에도 신경을 써서 분석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을 써서 통계에서 산출된 수치를 분석하였다.

2. 한국 산업의 경쟁력 패턴

한국의 여러 산업들은 지난 20여년간 급속도로 경쟁우위를 향상시켜 왔으나 모든 산업이 그러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떠한 산업에서 한국이 국제적으로 성공했는지를 알아보도록 한다.

(1) 성공적인 산업들의 리스트

이 리스트는 1985년도 세계 수출점유율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순서대로 한국의 50개 산업을 도출함으로써 작성되었다. 이 산업들은 의류, 철강, 선박, 여행용품(가방), 어류가공품, 원사 및 원단, 핸드백, 완구, TV, 라디오, 타이어, 칼류 등이며 대부분이 원재료나 최종 소비제품이다. 이 50개 산업의 수출액이 한국 총수출의 52%였으며 상위 20개 산업의 수출액이 한국 총수출의 31.4%였다.

수출액별 50대 산업을 보면 전자회로, 승합차, 연료용유, 통신장비, 부품, TV, 녹음기, 디시위서, 비디오, 트랜지스터 등으로 주로 연관산업이나 최종 소비재 산업이다. 이 산업들이 총수출액의 65.7%를 차지하고 있다.

평균 세계시장점유율을 상회하는 경쟁력있는 산업의 리스트가 다음에 나와 있는데 이 산업들의 수출액이 총수출의 84.7%를 차지했다.

이러한 한국의 성공산업을 범위면에서 볼 때 상위 20내지 50대 산업의 수출이 세계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외국의 경우보다 높는데 특히 독일, 스웨덴, 이태리, 영국, 미국보다 현저히 높다. 이는 총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로서, 한국의 수출은 비교적 집중화되어 있고 최종소비재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여기에서 알 수 있다.

(2) 역사적 패턴

1971년의 경쟁력있는 산업들의 리스트와 비교해 볼때, 시간이 지나면서 성공적 산업들의 폭과 길이가 많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71년에는 0.33%의 평균 세계수출 시장점유율을 상회하는 산업이 어류, 채소류, 실크, 원사, 원단, 비가공금속 등 노동집약도가 높고 기술집약도가 낮은 산업들이었다.

1971년과 1985년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첫째, 실크, 시멘트, 담배 등 자연자원 집약적 산업과 외국에서 베니어나 합판 등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는 산업은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두번째로 의류, 신발, 가방 등의 경쟁력은 강화되었다.

세번째로 철강, 가전, 조선, 전자회로 등의 중공업들은 71년 이후 더욱 성공적이 되었다.

(3) 성공적인 산업들의 집군도

다음의 그림들은 한국의 경쟁력있는 산업들의 집군도이다. 여러 산업중에서 한국에 가장 중요한 집군은 섬유와 의류 관련 집군으로서, 이 산업들은 한국 총수출의 30%와 총 세계 수출의 7%를 차지한다. 두번째로 중요한 집군은 선박과 최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를 포함하는 수송장비 부문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집군은 가전제품과 녹음테이프 같은 관련 산업이며, 네번째로는 철강 집군을 들 수 있다. 이외에 반도체(메모리 칩), 식품(어류가공품), 시멘트, 건설장비와 기타 완구, 피아노, 칼류, 도기류 등의 독립적인 최종생산품들도 강세를 보였다.

한국기업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는 보건, 화학 및 플라스틱, 임업제품, 대부분의 식료품, 건설외의 모든 서비스산업들이다. 방위(군수)산업에서 한국의 비중은 아직까지는 매우 작으나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장거리 통신기기 및 OA장비는 1985년에는 미미한 비중을 차지했으나 역시 시장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다.

중요한 집군인 반도체와 컴퓨터는 가전제품과 연관되어 발전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조선과 자동차 등 수송분야는 금속, 특히 철강과 함께 발달되었으며, 반도체 및 컴퓨터 산업의 발전으로 장거리 통신기기와 OA 장비산업이 발달하고 있다.

한국의 강점은 대부분 집군도 아래쪽의 산업에 있으며, 최종소비제품과 서비스 집군에 해당하는 경쟁력있는 산업들이 총수출액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 성공한 제품들은 최종생산품이며, 특화(specialty inputs)된 투입물이나 기계, 서비스분야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점은 한국경제의 중요한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한국은 섬유/의류, 원자재/금속, 오락, 레저, 반도체, 컴퓨터 등의 비중이 높는데, 광범위한 부문에서는 수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섬유/의류 부문에서 비교적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이는 한국이 성공하고 있는 사업분야가 좁고 심도도 얕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한국의 성공이 특히 뚜렷한 분야는 최종소비재와 1차 산품이다.

한국의 경쟁상황은 정적이지는 않다. 한국은 3단계 모두에 걸쳐 상당한 성과를 올렸으며 특히 중간단계에서 이것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4) 산업연혁

1971년과 1985년의 패턴을 비교해 볼 때 상당한 차이점이 나타난다.

첫째로 국가경제발전의 상황이 진전됨에 따라 중요한 집군의 수가 늘어난다. 유명한 집

군들은 오락, 레저, 수송, 반도체 및 컴퓨터 등이다. 이외에 가정용품, 가전기구, 개인용품도 점차 중요시되고 있다.

둘째로 산업이 발달되면서 현존하는 집권들의 수직적 심도가 증가한다. 이는 특히 의류/섬유, 원자재/금속 산업에서 현저하다. 넓게 볼때 한국의 최종소비용품이 차지하는 지나친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특히 섬유/의류 부문이 한국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8년보다 10.6%나 떨어졌다. 반면 수송부문은 11.7%가 증가했다.

<표 2> 1985년 세계수출점유율로 본 한국의 50대 산업*

INDUSTRY	Share of Total World Exports	Export Value (\$MM)	Import Value (\$500)	Balance	Share of Total Exports
Iron, Steel Wire	57.0	45666	25	45641	0.15
Monochrome TV Receivers	52.4	215041	347	214694	0.71
Off-line Data Processing Equipment	41.8	236310	73350	164960	0.79
Men's Shirts of Synthetic Fibers	40.9	292283	-	292283	0.97
Men's Jackets, Blazers	39.4	417910	233	417677	1.38
Other Cargo Vessels	36.9	4545449	3296174	1249275	15.01
Containers Including Road-Rail	32.2	279798	11815	267983	0.92
Jukeboxes	31.9	5531	9225	-3694	0.02
Women's Coats, Jackets of Synthetic Fibers	31.8	212399	-	212399	0.70
Leather Clothes, Accessories	26.7	539989	862	539127	1.78
Travel Goods, Satchels	24.6	337005	1264	335731	1.11
Sweaters of Synthetic Fibers	24.2	448201	-	448201	1.48
Nonpile Continuous Synthetic Weaves	21.1	865306	69858	816018	2.93
Railway Sleepers	20.5	17050	18640	-1590	0.03
Women's Blouses of Synthetic Fibers	16.4	149778	-	149778	0.43
Frozen Fish, Excluding Fillets	15.7	260784	58225	202559	0.86
Cotton Yarn, 40 to 80 km/kg	15.4	128634	353	128281	0.42
Woven Silk Fabrics	15.4	104845	35892	68953	0.35
Men's Cotton Shirts	15.0	211624	-	211624	0.70
Articles of Furskin	14.7	161287	994	160293	0.53
Iron, Steel Structures and Parts	14.4	700826	28280	672546	2.31
Leather Footwear	14.3	1436334	-	1436334	4.74
Knitted Clothing Accessories	14.2	119430	1000	118430	0.39
Tankers	14.1	342319	17381	324938	1.13
Knit Undergarments of Wool, Fibers	13.7	283955	577	283378	0.91
Imitation Jewelry	13.1	101207	6935	94272	0.33
Handbags	13.1	133056	-	133056	0.41
Discontinuous Synthetic Fiber Yarn	12.6	128440	23843	104597	0.12
Iron, Steel Cable, Rope	12.5	124856	8178	116678	0.41
Nitrogen-Phosphate Fertilizer	12.0	136588	9509	127079	0.45
Men's Overcoats, Outerwear	11.9	261603	160	261443	0.86
Other Radio Receivers	11.9	142529	9432	133097	0.47
Dresses of Synthetic Fibers	11.7	68662	-	68662	0.23
Sweaters of Cotton, Fibers	11.4	299388	512	298876	0.99
Textile Articles	11.2	186546	2054	184492	0.62
Men's Suits	11.1	72771	109	72662	0.24
Toys, Indoor Games	10.8	475254	7283	467971	1.57
Men's Shirts of Other Synthetic Fibers	10.6	20507	519	19988	0.07
Steel, Copper Nails, Nuts	10.1	71652	2162	69490	0.24
Men's Trousers, Breeches	9.9	82255	173	82082	0.27
Steam Boilers	9.9	36391	17118	19273	0.12
Base Metal Household Appliances	9.8	185942	12278	173664	0.61
Shellfish Prepared, Preserved	9.7	82820	2424	80396	0.27
TV Picture Tubes	9.7	162266	41177	121099	0.54
Aircraft, Motorcycle Tires	9.6	249212	3175	246037	0.82
Synthetic Pile Fabric	9.0	38567	4128	34439	0.13
Women's Dresses of Wool, Cotton	8.8	57102	103	56999	0.19
Cutlery	8.8	109536	2833	106703	0.36
Motor Vehicle Radio Receivers	8.6	182887	5368	177519	0.50
Woven Cotton Fabric	8.6	122745	2730	120015	0.41
TOTAL					57.53

* 해당년도 총무역량의 0.3%를 초과하지 않는 산업은 제외시켰음.

또한 세계적으로 보아 한국은 집군도상으로 모든 수준에서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중간 수준이 많이 증가했는데 오락/레저, 수송과 섬유/의류산업들이다. 그러나 아직은 1차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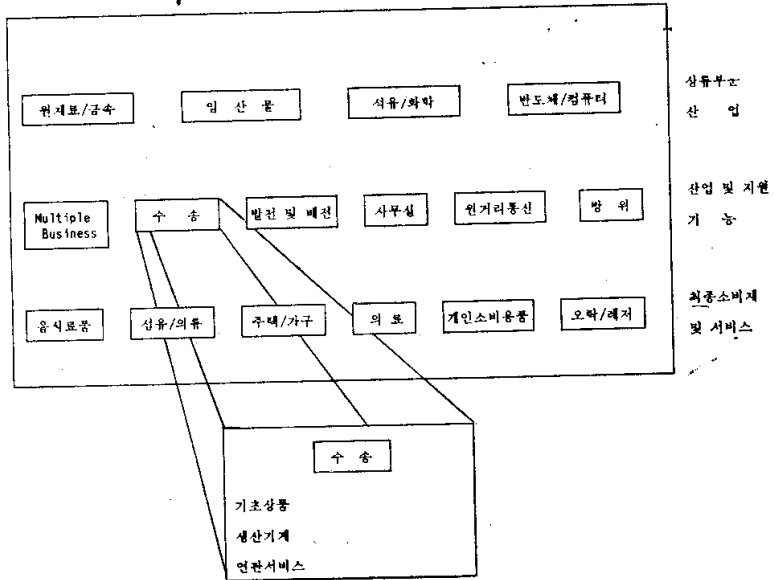
결국 한국의 경쟁력은 집군도상의 3단계에 걸쳐 상당히 향상되어 왔고 경제발전과 함께 아직 심도나 범위상으로는 미약하지만 여러 산업이 상당한 정도로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 1985년 총수출가치로 본 한국의 50대 산업*

INDUSTRY	Share of Total World Exports	Export Value (\$000)	Import Value (\$000)	Balance	Share of Total Exports
Other Cargo Vessels	36.9	4545449	3296174	1249275	15.31
Leather Footwear	14.3	1436334	-	1436334	4.74
Nonpile Continuous Synthetic Weaves	21.1	885906	69888	816018	7.33
Electronic Microcircuits	6.3	760213	261271	498942	2.51
Iron, Steel Structures, Parts	14.4	700826	28280	672546	2.31
Leather Clothes, Accessories	26.7	539989	862	539127	1.78
Passenger Motor Vehicles	0.6	518789	-	518789	1.71
Toys, Indoor Games	10.8	475254	7283	467971	1.57
Sweaters of Synthetic Fibers	24.2	448201	-	448201	1.46
Mens Jackets, Blazers	39.4	417910	233	417677	1.38
Iron, Steel Tubes, Pipes	8.1	381006	40036	340971	1.25
Color TV Receivers	6.9	376049	5626	370423	1.24
Tankers	14.1	342319	17381	324938	1.13
Travel Goods, Handbags	24.6	337005	1274	335731	1.11
Fuel Oils	1.1	300988	271955	29033	0.99
Sweaters of Cotton Fibers	11.4	299388	512	298876	0.99
Iron, Simple Steel Coils	7.8	293666	280343	13323	0.97
Men's Shirts of Synthetic Fibers	40.9	292283	-	292283	0.97
Knit Undergarments of Wool, Fibers	13.7	283956	677	283279	0.94
Containers Including Road-Rail	32.2	279798	11815	267983	0.92
Men's Overcoats, Outerwear	11.9	261603	160	261443	0.85
Frozen Fish, excluding Fillets	15.7	260784	58225	202559	0.85
Aircraft, Motorcycle Tires	9.8	249212	3175	246037	0.82
Spirit Jet Fuel	2.0	242708	158076	84632	0.80
Off-line Data Processing Equipment	41.8	238310	73350	164960	0.79
Dishwashers, Shavers, Appliances	3.6	233057	16371	216686	0.77
Prepared Sound Recording Media	6.0	231939	20412	211527	0.77
Fresh, Frozen Shell Fish	4.4	223669	17582	206087	0.74
Woven Synthetic Fiber Fabric	5.3	219732	119297	100435	0.73
Aircraft Over 15000 Kg	3.5	215745	204617	11128	0.71
Monochrome TV Receivers	52.4	215041	347	214694	0.71
Women's Coats, Jackets of Synthetic Fibers	31.8	212399	-	212399	0.70
Men's Cotton Shirts	15.0	211624	-	211624	0.70
Hotrolled Iron, Other Steel Bars	6.3	210964	-	210964	0.70
Telecommunication Equipment, Parts	1.5	209727	368652	-158925	0.59
TV Image, Sound Recorders	2.5	205562	12745	193817	0.58
Iron, Simple Steel Rolled Thin Plate	3.8	202556	49701	152855	0.57
Baby Carriages, Parts	7.3	188476	50826	137650	0.52
Textile Articles	11.2	186546	2054	184492	0.52
Base Metal Household Appliances	9.8	185942	12278	173664	0.51
Motor Vehicle Radio Receivers	8.6	182887	5368	177519	0.50
Portable Radio Receivers	7.2	174489	1023	173466	0.53
TV Picture Tubes	9.7	162286	41177	121109	0.54
Articles of Furskin	14.7	161287	994	160293	0.53
ADP Machine Parts	0.7	157694	133357	24337	0.52
Diodes, Transistors	5.2	154821	74388	80433	0.51
Women's Blouses of Synthetic Fibers	16.4	149778	-	149778	0.49
Iron, Simple Steel Rolled Heavy Plate	5.5	144248	140708	3540	0.48
Other Radio Receivers	11.9	142529	9432	133097	0.47
Gas Oils	0.8	139262	-	139262	0.46
TOTAL					55.97

* 해당년도 총무역량의 0.3%를 초과하지 않는 산업은 제외시켰음.

<그림 7> 집 군 도



<그림 8> 경쟁산업이 한국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집군도에 의한 예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원재료/금속 SCE 9.6(1.8) SWCE 1.1(1.0)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임산물 SCE 0.2(-4.0) SWCE 0.1(-0.1)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석유/화학 SCE 1.8(1.4) SWCE 0.2(0.1)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반도체/컴퓨터 SCE 4.4(1.1) SWCE 1.8(-0.2)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ultiple Business SCE 0.3(-0.2) SWCE 0.1(+0.0)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수송 SCE 9.6(1.8) SWCE 1.8(1.0)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발전 및 배전 SCE 1.5(0.5) SWCE 1.1(0.6)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사무실 SCE 0.5(-0.6) SWCE 1.0(-0.3)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원거리통신 SCE 1.4(0.6) SWCE 1.9(0.9)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방위 SCE 0 (0) SWCE 0 (0)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음식료품 SCE 4.2(-4.3) SWCE 0.6(0.1)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섬유/의류 SCE 29.4(-10.6) SWCE 6.6(1.5)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주택/가구 SCE 2.6(-0.0) SWCE 1.6(0.8)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의료 SCE 0 (+0.0) SWCE 0 (+0.0)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개인소비용품 SCE 2.2(-1.5) SWCE 1.3(0.2)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오락/레저 SCE 7.9(1.6) SWCE 3.8(1.7) </div>

주 : 괄호안의 숫자는 1978년부터 1985년 사이의 변동수치임.
 수출은 산업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경쟁적 산업에 대한 것들임.
 SCE : Share of Country Exports
 SWCE : Share of World Cluster Exports.

경쟁적 위치가 연관된 광범위한 부문

IV. 2단계 접근 : 국제경쟁력에 대한 산업별 분석

여기에서는 1단계분석의 결과 도출된 산업 중 한국전체산업을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된 11개의 산업을 잠정적으로 선정하여 이 연구에서 제시한 국제경쟁력 결정모델에 따라 분석해 보았다. 그 내용이 다음 <표 4>에 나와 있다.

<표 4> 각산업에서의 변수의 역할

	가 방 산 업	조 선 산 업	건 설 산 업	철 강 산 업
요소 변수 R C I F	+:노동속련도 +: 저임금 +	+:풍부한인력 +:환경규제미약 +	+:풍부한속련인력 +:저임금 +	+:엄격한노동규율 +:낮은 금융비용 +:원료의 해외로부 터의안정적확보 ○
수요 변수 R C I F	○ ○ +:여행자유화 ○	○ -:국내시장선점실패 ○ ○	○ ○ +:진후개발,경제개 ○발등으로토목수요	○ ○ +:안정수요확보 ○
현지 기업 변수 R C I F	○ ○ +:하청공장탐음 +	○ ○ +:과점경쟁을통한적 ○정수준경쟁상황존재	○ ○ +:경쟁상황존재 ○	○ ○ +:기업간시장분할 ○
연관 산업 변수 R C I F	-:패션,광고나후 + +:원자재산업 -:부자재산업나후	○시장확보능력을 +:갖춘계열기업존재 +:철강,페인트등원 ○자재산업발달	○ +:시멘트,철강산업 ○발달,해운발달 ○	○건설,자동차등대 +:광수요산업발달 +:건설엔지니어링 ○공장건설의기여
정부 R C I F	○ +:중소기업세계 ○혜택 ○	○ +:연불수출제도 +:조선소건설입안과 ○추진	○ +:입찰보증,용자 +:세계혜택,외환 ○관리상의혜택	○ +:정부의직접투자 +:특혜금융 +:경영권불간섭
기업가 R C I F	○ ○ +:창업의용이 +	○ ○ ○ +	○ ○ ○개척정신으로새 +:시장의지속개척	○ ○ ○조직문화형성동 +:한생산성향상
순수 기회 R C I F	○ +:올림픽통한성기 +	○:엔화강세 ○ ○	○ ○ +:월남,중동,리비 ○아득수	○엔화강세따른 +:반사적이익 ○ ○

* R은 지역특유요인 (Region-specific factor), C는 국가특유요인 (Country-specific factor), I는 산업 특유요인 (Industry-specific factor), 그리고 F는 기업특유요인 (Firm-specific factor)을 뜻한다.

* + : 경쟁력의 원천으로 작용한다. ○ : 경쟁력의 원천이 되지 못한다.

- : 경쟁력의 불리요인으로 작용한다.

	의류산업	가발산업	피아노	신발산업
요소 변수	R C I F + : 젓가락문화 + : 저임금, 노동의욕 높은 교육수준 ○ ○	○ : 풍부한인력 + : 저렴한 인건비, 숙련노동자, 노동 의욕, 노동윤리 + : 합섬원료의 독점적 ○ 구매자	○ + : 저임금노동, 노동윤리 ○ + : 기술자정신	+ : 젓가락문화 + : 저임금, 반숙련 노동 풍부, 노동의욕 ○ + : 기술
수요 변수	○ + : 생활수준향상 + : 산업수요가 큼 ○	○ ○ + : 외국수요의 증가 ○	○ + : 높은수준의 수요 ○	○ + : 일찍부터 시장 ○ 형성
현지 기업 변수	○ ○ + : 다수의 중소기업 ○	○ ○ ○ ○	○ ○ ○ ○	○ ○ + : 치열한 경쟁 + : 재벌의 형성
연관 산업 변수	○ + : 섬유산업발전 + : 섬유산업발전 ○	○ + : 섬유산업발전, 재봉 ○ 에 know-how 풍부 ○	○ ○ ○ ○	○ + : 섬유, 의류 ○ ○
정부	○ ○ + : 보조금, 대부, 정부의 지원의지 ○	○ + : 수출드라이브정책 + : 정부의 재정 및 조세정책 ○	○ ○ + : 지원감소 ○	○ ○ + : 보조금, 대부, 규제완화, ○ 특별세제장벽
기업가	○ ○ ○ + : 최고경영자의의지 수요예측능력, 혈족승계	○ ○ + : 위험부담기능, ○ 시장적소추구전략	○ ○ ○ + : 최고경영자의 의지	○ ○ ○ + : 최고경영자의 의지, 성공적 마케팅
산수 기회	○ + : 아시안게임, ○ 올림픽 ○	○ + : 미국의 중국산 ○ 섬유수입 제한 ○	○ ○ ○ ○	○ + : 연화철상 + : 베트남전쟁 ○

이 산업들은 가방, 조선, 건설, 철강, 의류, 가발, 피아노, 신발, 비디오테이프, 자동차, 반도체 산업이다.

이 11개 산업은 각각 다른 형태의 경쟁력조합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중 70년대에 이미 경쟁력을 확보했던, 가방, 조선, 건설산업의 경우에는 국내수요변수와 현지기업활동변수, 그리고 연관산업변수에 있어서 다른 산업의 경우보다 경쟁력 기여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들이 70년대의 산업으로서 노동집약적인 경우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산업에서의 정부의 역할은, 경쟁력기여에 큰 공헌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비디오테이프산업	자동차산업	반도체산업
요소 변수 R C I F	○:노동숙련도 +: 저임금 ○ +	○ +:노동생산성 + +:표준설계기술확보	○ + +:노동자생산성 ○
수요 변수 R C I F	○ ○ ○ +	○ ○ +:소득증대로국내수요 +폭발미국동남아시아시장	○ +:OA,FA수요 +:국내가전,PC산업발달 ○
현지 기업 변수 R C I F	○ ○ + +	○ ○ +:3사간의치열한경쟁 +	○ ○ +:4사간의적심한경쟁,전 + 분조립업체의 존재
연관 산업 변수 R C I F	○ +:폴리에스터등원료 ○산업발달 +	○ +:철강등연관산업발 ○ 달정도가크다. +:부품업체와공조유지	○ +:대량수요산업발달 + ○
정부 R C I F	○ ○ + ○	○ +:금융지원강화 +:신규참여제한 ○	○ +:세계혜택,국가전산망 +:국가차원프로젝트주관 ○
기업가 R C I F	○ ○ ○ +	○ + +:국제제휴의성공 +:직부몰입	○ +:bunching현상으로관심 +:과감,경쟁적투자 고조 +:제열사간의위협부담가능
순수 기회 R C I F	○ +:엔화강세 ○ ○	○ +:엔화강세 +:일본차에대한미국의 ○시장보호조치	○ + + ○

으나, 80년대에 들어와서 그 역할이 점차 축소되어 가는 것으로 사례분석에서는 나타나고 있다. 철강, 비디오테이프, 자동차, 반도체산업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투자주도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기업가의 역할이 정부의 역할보다 더 크게 네가지 변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V. 결 론

최근 한국의 환경을 고려해 볼 때 이 연구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첫째로 무역수지에 있어서 흑자기조의 정착으로 가중되는 무역마찰이 예상되고 있고, 두번째로 1987년부터 시작된 임금의 계속적 상승은 단순노동에서 오는 경쟁우위를 사라지게 하여 많은 경우에 있어서의 한계를 넘어 기술집약, 자본집약적인 방향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번째로는 환율이 절상되고 국제경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분담에 대한 요구가 거세어질 것이며, 마지막으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세계의 인식의 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환경하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줄어드는 만큼 기업의 역할이 커지게 되는데, 이 연구에서 기업전략에 대해서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집중화의 계속적 진행으로 해서 각 산업간의 연관성(Relatedness)을 더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각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은 수직적 통합성 및 수평적 연관성을 높여 이를 통한 기술 습득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혁신에 의한 差別化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국내기업간의 동질적 경쟁이 많았는데 이를 차별할 수 있는 전략으로의 변환이 필요하다. 넷째, 국내시장에서의 競争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경쟁을 단기적인 비효율성으로 보지 말고 이를 동태적 진보의 근간으로 보아야 한다. 다섯째, 기업의 각산업으로의 무분별한 확장은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이므로 지양되어야 한다. 여섯째, 수요변수와 관련하여 수입장 개방, 외국제품의 국내생산유도 등을 통하여 본국수요를 형성하는 소비자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으므로, 불이익요소측면에서는 과감한 해외의존을 할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임금인상, 원화절상 등의 불이익요소를 혁신에의 기회로 이용해서 제품, 공정, 서비스에서 계속적으로 혁신을 이룩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에서도 요소변수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해 나가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차원에서의 산학연계, 연구설치 확대, 해외지식정보의 수집 등 여러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 조동성, 국제경영학, 경문사, 1989.
표학길, 국제무역론, 무역경영사, 1985.

-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의 고도 성장요인, 1979.
- 한국개발연구원, 세계경제동향 주요지표, 1987. 1.
- 한국무역협회, 우리나라 수출의 국제경쟁력현황, 1986. 9.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업기술백서, 1987.
- 한국산업연구원, KIET 통상 백서, 1988.
- 한국은행, 광공업센서스, 1985.
- D.H. Hymer, *The International Operations of National Firms*, MIT Press, 1960.
- M. Porter, *Competitive Strategy*, The Free Press, 1980.
- M. Porter,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Working Draft, 1988.
- J.E. Leamer, *Sources of International Comparative Advantage: Theory and Evidence*, The MIT Press, 1983.
- J. Linder, *An Essay on Trade and Transformation*, John Wiley, 1961.
- J.G. Grubel & P.J. Lloyd, *Intra-Industry Trade: The Theory and Measurement of International Trade in Differentiated Products*, McMillan, 1975.
- J. Vern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Trade in the Product Cycl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May 1966.
- J. Chandler, *Competition in Global Industries*,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1986.
- O.E. Williamson, *Markets and Hierarchies*, Free Press, 1983.
- R. Knickerbocker, *Oligopolistic Reaction and Multinational Enterpris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 M. Scherer, "Inter-Industry Technology Flows in the United States," *Research Policy*, Vol. 2, No. 4, 1982.
- A. Bartlett, *Beyond Global Management: The Transnational Soluti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1989.
- R. Scott & G.C. Lodge, *U.S. Competitiveness in the World Economy*, Harvard Business School, 1985.